

# 광장에 선 기독교

## : 공적 신앙이란 무엇인가?

장수영 (포항공과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이 책의 원제는 『공적 신앙(A Public Faith)』이며 부제는 <그리스도인이 공공 선에 기여하는 방안(How Followers of Christ Should Serve the Common Good)>이다. 신앙은 공적 영역에서 반목과 불화를 일으키는 종교적 전체주의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적인 영역에서만 향유되도록 제한되어야 한다는 세속주의적 사고가 크게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러니 “공적 신앙”이라는 말이 낯설고도 어색하며 신선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볼프는 니체나 마르크스 같은 영향력 있는 수많은 학자들의 예상과 다르게, 오늘날 공적 영역에서의 신앙은 결코 주변으로 밀려나거나 소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중심에서 번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71-173쪽). 대중이 원하고,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나뉘지 않고 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다(11-12쪽).

공적 영역에서 종교가 번성하는 현 상황에서 신앙을 사적인 영역에서만 향유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세속주의적 주장은 점차 실효성을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자의 신앙 안에서 공공 선 도모와 관련된 자원을 찾아 그것을 공적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향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볼프의 주장이다. 즉, “기독교의 신념을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확실하게 지키며 그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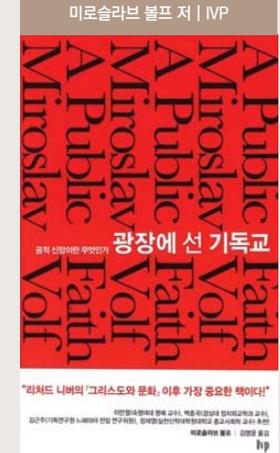
기쁘게 실천하는 데 도움을 주는”(21쪽)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볼프의 목적이다.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에서 “포용”을 네 단계로 나누어 자신의 논지를 흥미롭게 묘사했던 것과 유사하게, 볼프는 이 책에서 “상승”과 “회귀”라는 움직임에 이용한다.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된 1부에서는 참된 예언자적 신앙은 상승과 회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여기에 장애가 일어날 때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았다.

“상승”은 모세가 시내 산을 오른 것과 같이 수용적 자세로 신을 향해 나아가 파악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서 장애가 생기면, 하나님이 좁은 범위로 축소되거나 위상으로 대체된다는 것이 볼프의 주장이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파악하는 데 장애가 발생하면, 하나님이 한 개인이나 부족 혹은 국가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동원되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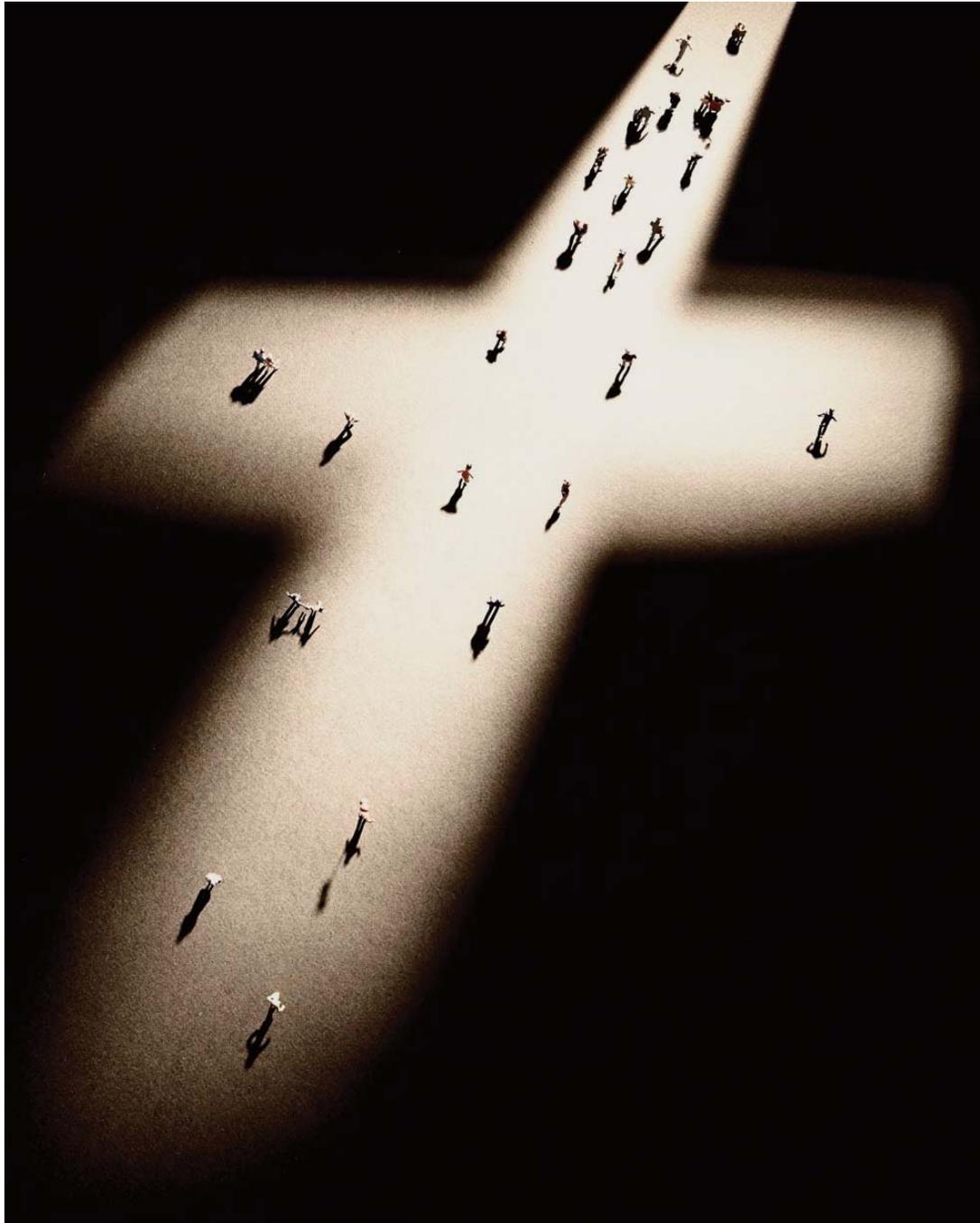
“상승”이 수용적인 자세를 요구한다면, “회

귀”는 창조적인 행위를 필요로 한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구원과 축복의 의미가 축소되면, 세상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해 세상으로부터 물러나는 “황량한 회귀”가 발생하는데, 이 “회귀”에서의 기능 장애를 볼프는 “나태함”이라 부른다. “회귀”에서의 기능 장애는 “강요”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유일신 사상은 폭력적이며 성경에 나타난 창조, 구속 그리고 재창조의 메시지는 주어진 환경을 강제적으로 바꾸는 파괴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볼프는 다신론이 유일신 사상보다 오히려 더 폭력적일 수 있으며 십자가에 나타난 “환대”의 메시지를 통



해 올바르게 해석하면 성경은 결코 폭력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만물과 인류의 번영을 지향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 2부에서는 어떻게 기독교가 공공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논한다. 독특한 “정체성”과 “차이”로 인해 기독교인은 공적 영역에서 적용, 순응 혹은 철수라는 태도를 취해야 했다. 볼프는 이 책에서 참여라는 자세를 제안한다. 신앙의 지혜는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되며 선물처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지만 말고 받기도 하며, 서로 다른 신앙에 대해 불편부당의 입장으로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들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결론을 맺으며 볼프는 “정치적 다원주의”라는 입장을 제안한다. 사실, 성경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라는 교리와 다원주의는 정면으로 충돌된다. 기독교적 원리에 따르면 결코 진리는 여러 개일 수 없다. 그러면 “정치적 다원주의”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기독교적 진리와 그것에 반하는 주장을 무분별하게 섞은 혼합주의일까? 무엇이 옳은 답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확실한 것은 볼프만큼 이 시대의 포스트모던을 잘 이해하는 사람도 드물다는 것이다. 스스로 밝혔듯이 그는 결코 다원주의를 옹호하지 않는다. 그가 말하는 정치적 다원주의 이념은 “네가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의 실천이다.

볼프의 글은 언제나 그렇듯이 통쾌한 것이 매력이다. 현대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모두를 비판하며, 성경 이야기 곧 그리스도의 십자

가에 담긴 가르침으로부터 매우 호소력 있는 대안을 찾아내는 그의 거침없는 지적 행보는 경쾌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유대교와 이슬람, 기독교가 모두 “아브라함 전통”이라는 공통의 기원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은 보수적인 신앙을 견지하는 이들에게 위험천만해 보일 수 있다. 아마도 아브라함 전통으로부터 세 종교의 “평화”를 일궈낼 자원을 찾아보려는 진정성에서 비롯되기는 했겠지만, 자칫 평화는 연되 진리를 잃게 되는 비용을 지르게 될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공적 신앙을 찾아보려는 볼프의 기획에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은, “공적 신앙”을 찾아 그 기초 위에 공공 선을 건설하는 것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요청이자 다원성이 인정되는 오늘날의 복잡한 정치적 지형 위에 평화적 공존을 이루어 내는 중요한 과업이라 여겨지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장수영** 현재 포항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이며 연구본부 본부장이자 기독교문연구회 학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사)나눔과 기술, 크리스천 과학기술인 포럼의 공동대표이다.